

Photonics Movements

광산업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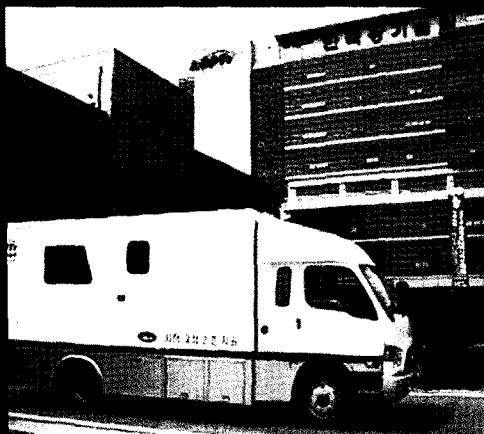


'국제 LED 엑스포 2009'
컨택서서 개막



'2009 광주발전포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2009 광산업 신기술·
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 개최



한국광기술원, 현장 교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

‘국제 LED 엑스포 2009’ 킨텍스서 개막



EXPOnU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공동주최하여 5월2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230여 LED업체가 참여한 국제LED엑스포2009에 한국광산업진흥회 허영호 회장(LG이노텍사장),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최연희 의원, 박영아 의원, 안양호 경기도 부지사,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 등과 함께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액티브 디밍’ 기술을 적용한 삼성 LED TV

이번 전시회에는 LED 칩, LED조명, LED장비 등 다양한 제품 전시 및 전시 기간 중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LED세미나, 제품설명회 등 부대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전시기간 중 약 1만6,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관하였다. 특히 삼성LED, 금호전기, 우리조명 등 국내 주요 LED기업과 대만 에피스타(EPISTAR), 일본 SANYO 등 해외업체 40여개가 참여해 세계 LED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삼성LED는 ‘액티브 디밍’ 기술을 적용한 LED TV를 선보였다. 액티브 디밍이란 예지형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의 소비전력을 절감하고 명암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소비전력을 40% 절감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엘이디웍스가 개발한 360도로 회전하는 LED 전광판 ‘스핀티비(SPIN-TV)’

전시장에서 LED전광판 전문업체인 엘이디웍스가 개발한 360도로 회전하는 LED 전광판 ‘스핀티비(SPIN-TV)’가 화제가 되었다. 스핀티비는 원통형 본체 안에 설치된 16개의 LED 바가 고속으로 회전할 때 생기는 잔상을 이용해 고화질 동영상 광고나 정보영상을 재생하는 신개념 LED 전광판으로 독일, 대만 등 해외에서는 이미 선보이고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으나 국내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세미나에는 오스람, 도요타고세이, 파나소닉, 도시바 등 선진 업체가 참석해 LED 기술개발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나누고, 청색 LED개발자인 쇼지 나카무라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 등이 메인스피커로 참여하였다.



‘2009 광산업 신기술 · 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 개최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허영호)에서는 6월 16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광산업 관련 산학연관 임직원 등 약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광산업 신기술 · 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며, 광산업 분야의 국제적인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광산업분야별 신기술 · 시장 동향분석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원사업의 하나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산업 분야 중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광통신과 최근 녹색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LED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국제적인 신기술 및 시장동향에 대해 전문가

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발표로 구성하여, 당초 목표한 세미나 참가자 70명을 상회하여 약 140여명의 광주전남지역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종득 기획관리팀장은 "광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체 수요맞춤형 인력 보수교육을 통한 글로벌 광산업 상황에 부합하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보다 빠른 정보를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므로 광산업 기술·시장 동향분석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광산업 전문 인력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광산업진흥회

'2009 광주발전포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6월 1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녹색성장 광주가 이끈다'를 주제로 매경 주최 광주발전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장에는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 광주광역시 박광태 시장,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영복 상근 부회장, 전남대학교 부총장, 조선대학교 총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관련 기업, 대학생 등 500여명의 많은 참석자가 몰려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 이용섭 의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현대자동차 박성현 부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장대한 매일경제신문·MBN 회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올해 36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광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앞으로 녹색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회장은 "광주를 명실상부한 첨단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 광주시,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광주기술위원회 발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개회사에서 "LED산업을 광주가 앞장서 육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산업을 융합하는 한편 50만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를 열어 광주를 세계적인 광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역 경제에 30% 이상을 기여하는 자동차산업을 앞으로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2015년까지 지역 생산능력을 8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클린디젤자동차를 집중 육성해 첨단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신차 생산라인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 노사분규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노사관계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노사협약의 질"이라고 말하고 "광주는 전국 최대 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고 자동차부품 기업과 축적된 인프라스트럭처로 친환경 그린산 산업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는 녹색성장을 향한 광주의 도전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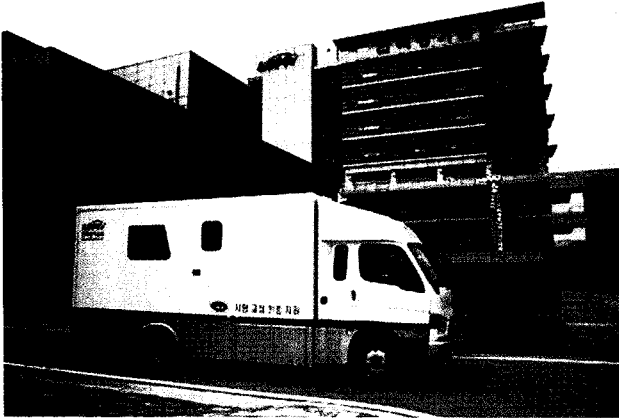
포럼은 2개 세션으로 나뉘 열렸으며 제1세션에서는 이상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이 '광산업의 미래와 광주'를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병택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승우 지식경제부 정보전자산업과장, 신용진 조선대학교 교수, 송상빈 광기술원 연구원, 주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제2세션은 자동차산업 분야로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가 '클린디젤자동차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차용훈 조선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최병철 전남대학교 교수, 배정찬 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반기술연구본부장과 박성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그동안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전략산업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며 "국가의 정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한국광기술원, 현장 교정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



한국광기술원(원장 유은영)은 기업지원의 효율을 증대 시킬 목적으로 무진동 이동형 교정시험실(교정지원차량)을 도입하여 가동한다.

현재 광산업체에서 제품 생산 도중 장비를 교정해야 될 경우, 장비 가동과 맞물려 애로 사항이 많았지만, 교정 장비를 직접 차량에 탑재하여 방문 후 교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정지원 차량의 도입으로 기업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절감시켜 생산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광기술원은 06년 5월 광통신계측기 분야에서 KOLAS 국제 교정 기관 자격을 획득하여 교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측정의 기본이 되는 전기분야 계측기 및 온도 분야까지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종혁 한국광기술원 시험인증팀장은 "그동안 광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장교정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향후 광도/전기/온습도 분야의 교정 기관 자격을 획득하면 산업체에 대한 지원 효과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광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레이저센터와 MOU 체결

국내 유일의 광관련 전문 연구소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원장 선우중호) 고등광기술연구소가 러시아 최고 명문대학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oscow State University, MSU)의 국제레이저센터(International Laser Center, ILC)와 최근 상호교류협정(MOU)를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교원, 연구원, 학생 등 연구인력 교류 및 레이저 분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ussian Academy of Sciences, RAS)와 함께 러시아 과학기술의 산실로 손꼽힌다. 1990년에 설립된 국제레이저센터(ILC)는 모스크바 국립대 내의 레이저 관련 연구를 총괄하는 핵심 연구센터로 현재 16개 연구실을 설치하여 해외 기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학제적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의 실무조율을 담당한 석희용 교수는 "러시아는 세계최고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이라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이미 미국 샌트럴플로리다 대학교 전자광학 및 레이저 연구센터(CREOL),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JAEA), 프랑스 광응용 연구소(LOA) 등 세계적인 광과학기술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아시안레이저센터 사업을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레이저 연구역량 강화에도 앞장서는 등, 국제적인 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출처 : 고등광기술연구소